

8장. 벤야민과 멜랑콜리

[카프카: 사이렌의 침묵]

미흡한, 심지어 유치하기까지 한 수단들도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다.

사이렌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디세우스는 귀를 밀랍으로 틀어막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몸을 돛대에 단단히 결박했다. 물론 오래 전부터 사이렌의 유혹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, 아무도 그런 유치한 방법을 믿지 않았기에 수많은 이들이 사이렌의 유혹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. 물론 사이렌의 막강한 노래의 힘을 맞줄이나 밀랍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, 오디세우스도 그런 일이 소용없다는 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. 그러나 그는 한 줌의 밀랍과 맞줄을 완전하게 믿었고 나아가 그 유치한 장비들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사이렌을 향해서 바다로 나아갔다.

그런데 사이렌은 노래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. 그것은 침묵이다. 이전에 그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기는 하지만, 그래도 누군가가 사이렌의 노래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건 상상이 가능하지만, 사이렌의 침묵을 이긴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. 자신의 힘으로 사이렌을 이겼다는 자만심을 누가 이겨낼 수 있겠는가.

사실상 오디세우스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사이렌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침묵했다. 그 이유가 오디세우스와 같은 적에게는 침묵만이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, 아니면 자기 믿음에 가득 찬 오디세우스의 천진한 얼굴에 사이렌들이 매혹 당해서 그만 노래 부르는 걸 잊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다.

어쨌든 오디세우스는 그들의 침묵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이렌들이 노래를 부르지만 자신이 그 노래를 듣지 못하고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믿었다. 사이렌을 지나가면서 얼핏 고개를 돌렸을 때, 오디세우스는 자기를 보려고 돌아 선 그녀들의 긴 목, 깊은 호흡, 눈물이 가득 찬 눈, 반쯤 열린 입을 보았지만, 그마저도 들리지 않은 채 주위를 감돌다가 멀리 사라지는 아리아의 모습이라고 굳게 믿었고, 곧 그 모든 것들이 먼 곳을 응시하는 그의 단호한 시선 밖으로 미끄러져 사라져 버렸다. 사이렌들은 그 단호함 앞에서 사라져버렸고, 가장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도 오디세우스는 어찌면 그녀들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. 하지만 사이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고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면서 발톱을 한껏 드러내고 있었지만 이미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려고 하지 않았다. 다만 오디세우스의 커다란 두 눈이 반짝이는 빛을 더 오래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쓸 뿐이었다. 그렇게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.

그러나 또 하나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. 오디세우스는 여우처럼 너무도 피가 많아서 신들조차도 그 속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. 그래서 어찌면 오디세우스는 사이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마치 노래를 듣는 것처럼 사이렌과 신들에게 연극을 했던 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다.